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포함)사업 심의 총평

1. 문화일반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사업 문화일반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12월13일(금) 10:00~16:00
- 회의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관호, 김한신, 김형희, 박현미, 유경숙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사업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2개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신청 및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문화예술단체 수요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분야 청년층 신규채용 지원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고자 현장예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종사자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와 상생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단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단체의 인력 운영계획, 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존 예술활동의 성과와 2025년도 활동계획 등을 심의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진행하였고,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무사의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2차 심의는 제출된 신청서상의 역량강화 교육 등 인력운용 계획의 실효성과 분장 업무의 적정성 및 연수단원 및 무대기술인턴의 향후 경력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단체의 노무관리 수준과 고용 창출 노력도 주요 쟁점으로 토론했습니다. 최종적인 신청단체별 지원 인력의 분야와 규모는 신청사항을 반영하되 기존 조직에서 수용 및 관리가능한 규모에 비해 인력의 수를 다소 과하게 신청하거나, 상대적으로 인력운용 계획의 충실성과 적절성 등이 다소 모호한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인력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장애인 채용계획을 제시한 단체의 경우 신청인력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업무환경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신청서상 제시한 계획의 충실성과 실효성,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비교열위 판단에 따라 아쉽게도 기회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 모니터링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최종 심의한 결과, 총42개 단체, 63명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공립11단체 14명, 민간31단체 49명으로 총 지원액은 1,295,000,000원입니다.

신청단체 대부분 쉽지 않는 여건속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역활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예술계도 타 산업과 같이 직종, 직무의 개념과 체계적인 전문교육 시스템, 노무 행정이 정착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사업을 통한 신청단체의 조직운영 효율화와 조직역량 강화, 그리고 채용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및 네트워킹 등 본 사업의 핵심목적과 취지를 충족하는 성과 창출 측면에서는 다수의 단체가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보완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청단체 모두를, 그리고 신청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언제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구분지어야 하는 지원사업의 틀이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밖에 없기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요청과 지원의 손길이 닿지 못한 단체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지원받게 된 모든 단체들에게 본 사업이 일반적인 고용지원 사업이 아닌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사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업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